

#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둘이 아니고,

## 계율을 청정히 하라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해인 스님



生死의 고통에서 해탈하라. 대자비심으로 수행하라. 너희들은 내가 열반에 들어도, 戒律을 지키면 내가 있고, 戒律을 지키지 않으면 태산 같은 사원을 지어도 나의 법은 아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위태롭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오로지 수행 정진하라. 나의 수행법은 戒·定·慧 三學이다. 여기서 벗어난 불교수행의 길은 없다. 그러므로 계율을 청정히 하라. 언제나 내가 있다. 청정한 계율의 지킴은 정진의 시작입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바로 하여 정진 또 정진 합니다.

##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의 시작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4월 초파일 날이 오면 우리는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나와 이웃과 그리고 역사의 짙은 어둠을 깨쳐서 그 앞길을 비추는 보편의 진리로서의 ‘빛의 탄생’ 이요 ‘자비의 오심’ 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라 흉내 내면서도 불제자가 아닌 분별의 능력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불쌍한 중생들이 바르게 세상을 보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심을 찬탄하는 중생 모두가 머리로 삼지 말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인간다운 인간, 불자다운 불자 이기를 두 손 모아 합장 기원합니다.

## 칠보산 돌사자는 보이지 않고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해안 스님



“박쥐의 출세는 컴컴한 굴속을 차지 함이요 봉황(鳳凰)은 오동(梧桐) 아니면 깃들지 아니하고 대호(大虎)는 굶주려도 죽은 고기를 취(取)하지 않느니라. 북천에 번개치니 남천에 천둥이라 청산에 소쩍새 울음은 날새는 줄 모르네. 오호라 칠보산(七寶山)에 돌사자는 보이지 않고 온갖 잡새만 지저귀도다. 부처님 말씀에 영원(永遠)한 것이 없거늘 무상살귀는 문전에 와 있는데 어찌하여 천년 근심에 세월만 보내는가. 부처님 이 한등의 공양을 저버리지 마옵소서” 부처님오신날 뜻쟁이 부처님 자비광명에 귀의할 기원합니다.

## 팔엽연화 활짝 피옵시다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중생들이시여, 눈(眼)이 청정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느니라. 귀(耳)가 청정하면 가릉빈가의 노래소리 들느니라. 코(鼻)가 청정하면 삼라만상 연화향을 맡음이다. 혀(舌)가 청정하면 내는 소리 모두 불음이다. 몸(身)이 청정하면 일체중생이 보기를 원하노라. 마음(意)이 청정하면 자타 모두 부처님이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얻어 팔엽연화 활짝 피옵시다.

## 평화와 화합 서원 세우는 날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 오신날 사바에 나투신 크나큰 뜻을 따라 평화와 화합, 생명존중의 서원을 세웁시다. 진정한 불자로 돌아가 참 불자로서 청정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장엄하여 봅시다. 인간의 몸 받기 어렵고, 그 몸이 부처님 법 만나기 더욱 어려운데 부처님 법 받아 우러르며 여래의 진실법을 깨달아 갑시다. 부처님 법 모르는 이에게 알게 하고 참 생명의 자아를 모든 사람들에 알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은 둘이 아니며 마음 밖에 부처가 없음을 나부터 알고 행하도록 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 부처님 자성의 꽃 피워라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해승 스님



佛法元來無二相 불법원래무이상 來同水月去山雲 래동수월거산운 見似夢川潤谷響 견사몽형문곡향 但空性是釋迦文 단공성시석가문 불법에는 원래 두 가지 모양이 없으니 옴은 물속의 달과 같고 감은 산마루의 구름 같아라. 봄은 꿈속의 형상과 같고 들음은 골짜기 메아리니 공한 성품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이다. 공한 그 자리 꽃 피는 그 모습이 그대로 석가모니의 대이니 두 손 들어 찬탄하며 노래 부르고 춤을 추세. 등꽃 만발한 새벽 날.

## 묵조선풍 일으키는 날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坐禪風裏默照發 月夜懸對對佛心 曹洞不須話頭 滅却寂寂火自涼 좌선 바람속 묵조선풍 일으키니 달밤에 은근히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는구나! 조동종은 반드시 화두를 필요하지 않지만 고요함을 멸해 불이 스스로 서늘해 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지 2560년이 흘러가 버렸지만 아직도 그 법은 수승하기에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종교와 이념을 떠나 자비의 실천을 행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본 생명인 원각을 성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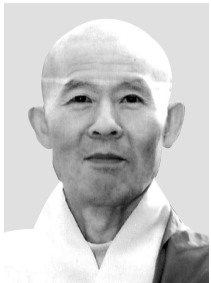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부처님은 빛과 원음으로 오시고, 법신으로 오신다. 육체의 질곡과 마음의 미혹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인간은 본래부터 자유인이요, 영원이요, 완전자임을 보여주기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부처님 오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되새겨 보는 일이다. 즉 대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라는 허구를 자각하고 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인류최대의 자유자재인을 기리는 데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오늘 진리의 꽃비가 사바의 중생들에게 두루하는 신록지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부처님을 맞이하여 중생 모두가 등불이 되어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천지 부처님의 가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연등만으로 무명을 다 견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불을 밝혀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공경하고 존경하여 내 몸 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비로소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 마땅한 행을 실천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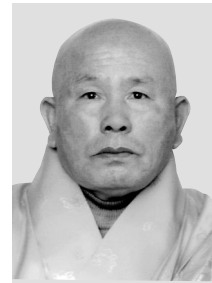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함께 봉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의 가르침대로 각자가 서원을 세워 건성 성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불자라면 오늘 당장 자신의 마음을 관조(觀照)하고 단박에 깨우쳐서 성불하여 매일 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등불에 자신의 등불을 켜고 나를 비롯하여 우리 이웃과 인류 모두가 함께 평안하도록 마음을 내고 마땅한 행을 실천해 가는 것이 부처님 오신날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 반야광명으로 슬기롭게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온 누리에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씩 걸으신 후 외치셨다고 하는 탄생계의 첫 구절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천하’는 하늘 위 하늘 아래라는 말이므로 이 세상 이 세간을 말하고 ‘유아독존’은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병신년도 초파일은 우리 다 같이 탐내고 성내고 여러서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 마음이 깨끗해야 참된 출가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我見出家人 不入出家學 欲知真出家 心淨無纏索 澄澄絕妙如 如如無倚托 三界縱橫 四生不可泊 無爲無事人 逍遙冥快樂 내가 출가하여 출가한 사람을 보니 출가한 배움에는 들지 못하였네. 참된 출가를 알려거든 마음이 깨끗하여 얽매임이 없어야 하네. 씻은 듯 맑아 현묘(玄妙)가 끊기고 본디 그러하여 의탁(倚托)할데 없어야하고 삼계에 마음대로 종횡할이니 사상에 어디에나 대일곳 없네. 하염없고 일없는 사람이니 소요(逍遙)히 쾌락(快樂)에 맡길뿐.

## 믿음과 신뢰로 청정함 찾아야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자기를 지극한 참회로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의 청정함을 찾아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 대지가 공존공생의 삶이 되도록 바로보고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 모두가 스승이며 선지자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의륜 스님



不擇師 無以法 不折我 無以學 不修學 無以成 不觀心 無以通 스승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법 받을 것이 없으며 나를 꺾지 아니하면 배울 수 없다. 3학을 배우지 아니하면 보리를 이룰 수 없고 마음을 관하지 아니하면 도를 통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스승이며 선지자 이므로 부처님 탄신을 다시보는 생각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나의 고집을 놓고 비우면 마음관으로 도를 통하여 뜻을 이룰 수 있나니.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합니다.

## 오늘 불교는 이것을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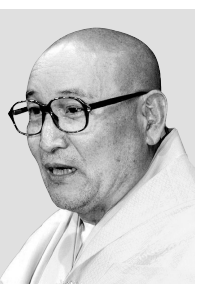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지금 저 달을 가르키고 있는 손가락을 바로 달인 줄 아는 미혹의 중생들에게 그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달을 보라”고 우리는 중생들이 잘못보고 있음을 자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저 간곡한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부처님을 형식으로만 믿지 않았을까? 부처는 우리의 생명 속에 계시며 심장으로 믿을 때 진실로 나투십니다. 깨달음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 이웃을 위한 봉사가 佛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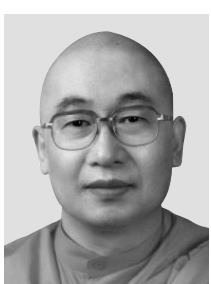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회암 스님



三界熱惱 猶如火宅 基忍淹留 甘受長苦 삼계의 중생세계는 탐진치의 번뇌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속에 육신으로 불타는 세계다. 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자승자박의 자가당착적인 요인들이 한시도 쉬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본심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므로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되며 해탈의 경지에 이르며 육신의 번뇌가 밝아 뜻을 이룬다는 부처님의 말씀이시니.

## 성공은 가피입니다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積一行得佛이라. 올바른 일에 정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 정진한다면, 그는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님, 그는 공양 받을 만한 고귀한 남입니다. 수행이란 행복이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가피입니다. 꾸짖람.

## 부처 자비로서 희망 등불되자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오늘부터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 것을 알고 오직 자비로써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인연의 스승이시며 사생육도의 아버지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광명의 날입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자비의 화신으로 출현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의지하여 우리 중생들도 새로 태어나는 뜻 깊은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불자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희망과 등불이 되기를 서원하는 바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풍요로운 극락정토 실현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부처님께서는 불기 2560년 음력 4월 초파일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자, 또 지혜 광명으로 고해중생 건지고자 자비보덕의 큰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마음의 등불 밝혀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뜻 기록하게 받들어 실천 봉행함으로써 이 땅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극락정토를 실현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허공에 싸고 건다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來興白雲來 去隨明月去 去來一主人 畢竟左何處로다. 죽음을 슬퍼함은 흰 구름과 함께 왔고 가실 때는 밝은 달빛 따라 갔네. 오고 가는 한 주인은 마침내 어느 곳에 있을 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자리가 잘 정돈되어야 한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어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따르게 하여 이는 곧 수레가 바퀴를 따르는 것과 같다. 허심은 빈배, 상서로운 한 줄기 빛, 너는 이것을 보았는가. 허공을 모두 싸고 자꾸 뺏다 건었다 한다. 바람 따라 비를 끌며 집에 돌아가라.

# 마음 밖에 부처가 없음을 나부터 알고 행합시다

## 계행 지켜 생명 자리를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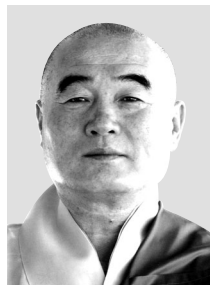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해봉 스님



석가여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어서 능히 불법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의 가피가 충만하오니 우러러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중생들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염원하시는 대자대비이십니다. 이 뜻을 알아 진실된 이치만을 염원하고 불성을 찾아 정진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진하는 법은 우선은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정을 통해 근본 생명의 자리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좋은 날, 다함께 견성성불 합시다.

## 자비성찰의 계기로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회장 무산 스님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불교가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자비의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주법계의 진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지만 인간의 미혹이 이를 가려 어두운 방황의 길을 재촉하고있는 이때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 종교지도자가 자리이타의 근본정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축의 위대함도 그야말로 공염불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자. 자비무적이라 하지 않았는가? 우린 자비로왔다 다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각해 보자.

## 존귀함을 알고 참된 삶을 살자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부처님오신날 이날, 밝은 연등을 높이 들어 봉축하고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고귀한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삶을 되새겨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주는 참된 삶을 실천하는 정토사회가 구현되기를 서원합니다.

## 꽃이피고 지니 자연이네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홍산 현불 스님



梅花片白足知春 花開花落一春事 一去一來無窮意 一二三四本自然  
매꽃이 피었으니 봄식이 분명하고, 꽃이 피고짐은 한가지 봄의 일이지, 한번가고 음이 무궁한듯 지냈어도, 한둘셋넷 그대로가 자연인 것을. 진리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항상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내가 있기에 세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평상심을 가지고 여유하게 나를 바로보고 정진 합시다.

##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사바세계가 없다면 여래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수 억겁을 윤회의 굴레속에서도 여래를 만나지 못하니 여래는 오직 중생의 근기에 따라 나타나며 오고감인데, 한순간 탐욕이 사슬에 갇혀있는 눈만 타는구나. 항상 자신만의 이익을 따져 생활하지 말고, 상대방을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응대 한다면 결국 자신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조금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마음의 등불을 밝히길 기원드립니다.

## 바른행 실천 참 불자가 되자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종정 동진 스님



빛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은 스승의 날입니다. 역조창생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말씀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불자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날이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 진리를 구하되 서로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흐트러진 자제와 혼란스런 마음을 참회하며 기도 정진합시다. 부디 자신 안의 청정함을 찾아 무거운 업장을 떨쳐버리고 인류를 위해 사회와 가정을 위해 바른 행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 불생불멸의 참인연 맺길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오늘은 4월 초파일이라 부처님오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因緣無門 불자들은 여래장 종자 연등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아 우리 몸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과 불성 한 물결은 오고감이 없는 불생불멸입니다. 한번 태어난 육신은 사대(지,수,화,풍)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연이란 이렇게 표현 하렵니다. 우리 불자들은 모두 인연 공덕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 진정한 연등, 마음 등불 밝혀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느니라” (법구경)  
진애하는 불자 여러분! 인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80세의 생애를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길에서 태어나서서 길에서 열반하셨습니다. 불축을 맞이하여 진정한 연등(蓮燈)불,마음의 등불인 각자의 자명(自明) 등불을 밝혀서 행복한 사바세계를 이룩합시다.

## 모든 생명을 사랑합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만법(萬法)의 참 모습은 둥근 햇빛보다 더 밝고 푸른 허공보다 더 깨끗하여 항상 때묻지 않습니다. 악하다 천하다 함은 길보기뿐 그 참모습은 거룩한 부처님과 추호도 닮음이 없어서 일체가 장엄하며 일체가 숭고합니다. 눈 앞의 모든 것부터 광대한 우주까지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시다.

## 불법은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흥 스님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의 깊은 뜻은 중생제도 및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연기 설법으로 팔만사천이나 되는 경전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하고 계십니다.心性即 種種法生(심성즉 중중법생) 心滅即 種種法滅(심멸즉 중중법멸)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믿음을 넘어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이 예토에 오신 뜻을 다시금 마음속에 담아 사상제 육바라밀 행과 팔정도를 관조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 인연세상 소망 일구길

원용교단 대한불교조계산문 무문총림 대법주 보당 스님



병신년 부처님 사바간담 불축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구류중생과 더불어 안심입명의 변화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소망과 희망은 단순히 마음으로 새기고 뇌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편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억에 사로잡혀 행업을 생산하지 말고, 어떠한 경계에 다다라도 우선의 손익 계산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삶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고 조화롭고 진취적 삶을 일구어가는 광명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 중도로 분별 고집 버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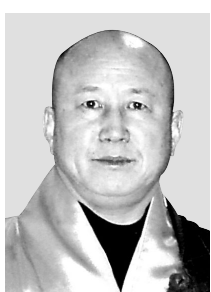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윤남 스님



그 어느 때 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한 오늘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한번 나를 돌아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 봅시다. 동체대비의 실천으로 나눔과 이타행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모든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마음의 등불을 들고 이웃을 나로 보고 내가 이웃이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도 하나가 되는 윤회의 중도를 바로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우리 서로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존경하고 존경합시다.

## 과거불행 노인불수

(중)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불기 2560년 사팔불축을 맞이하여 대덕큰스님과 사부대중 사원과 각 가정 부처님 공덕 가득하소서! 우리 인생은 전셋집에 이 몸을 담고 젊고 늙음을 막론하고 어느 시에 전셋집에서 나오지 모릅니다. 과거불행(敝車不行)이요(깨진 수레는 행하지 못함) 노인불수(老人不修)로다(늙으면 닦지 못함)이라. 송죽의 절개는 북설한풍을 지낸 후에 그 절개를 알게 되듯이 불축의 기운이 온 국민과 함께하여 서로 상생하고 공부심으로 평화의 불국토를 발원합니다.

## 오직 마음의 평화를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만 생명이 평등하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려 주셨습니다. 세상 두드물물이 유한하여 영원한 것은 없지만 불법만이 홀로 존귀하여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탐진치에 물든 나를 바로보고 본래의 청정을 찾으려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만족이 없으므로 오직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나와 다름이 아님 부처님 큰 뜻

대한불교원용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모든 불제자 여러분과 함께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악과 귀천의 모든 모습은 겉때기일 뿐 그 참모습들은 거룩한 부처님과 같아서 일체가 거룩하며 숭고합니다. 이는 나와 다름이 아니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아픈 이웃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심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 아름다운 마음이 지혜와 자비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화엄경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려면 믿음을 심지로 하고, 자비를 기쁨으로 하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지혜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오늘 우리 모두는 지혜의 자비로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살아 가겠다고 서원합니다. 밝은 등불로 장엄된 기쁜 이날, 사바세계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세요.

## 믿음을 심지로 자비를 기쁨으로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흥 스님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가득하시니,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며, 인연따라 골고루 나아가지만, 언제나 깨달음의 자리에 항상 계시네”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가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심지 삼고 자비를 기쁨으로 삼으며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삼독을 태우는 연등을 밝힙시다. 그러므로 마음속의 연등은 밝게 빛나 못 중생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화평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다함께 성불합시다.

## 세세년년이 영원한 등불이다

(사)대한불교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 영원토록 밝혀 꺼지지 않는 등불을 사람 사람 마다 밝혀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 년년이 밝게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여. 부처님 오신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족한 지혜를 등불과 같이 밝히고 탐진치 삼독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 자연은 그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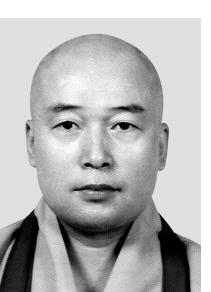
법안조계종원로위원장 대현 스님



日上月下(일상월하), 山心水淨(산심수정) 해가 뜨니 달이지고, 산이 깊으니 물이 깨끗하다. 자연은 그러할 뿐입니다. 아무런 가식도 드러남도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여여(如如)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중생세계에 나투셨습니다. 일대사 인연으로 중생계에 강림하신 부처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중생들의 해안이 한층 밝아지길 바라며 부처님 은혜에 두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 중생 아픔이 부처 아픔이다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회장 각성 스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하나의 중생, 일원화, 획일화, 단일화된 중생이 아니라 하나 하나 모두 다른 중생인 그들 본래가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하늘과 땅속에 계시지 않고 진정으로 모든 중생 그중에서도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있는 모든중생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있는 바로 그 사람을 예배하고 공경하는데서 부처님은 광명과 환희로 나투는 것입니다.